

**2017학년도 부산대학교 대학입학전형 대비
모의논술고사(인 문 · 사 회 계) 문 제 지**

지원학과(학부)		수험번호		성 명	
----------	--	------	--	-----	--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연필 또는 사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항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실’과 ‘해석’의 대립은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로 나타나기도 한다. 역사가가 처해 있는 어려움은 바로 자기 자신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람이란 아주 어린 유아기나 극단의 노년기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자기 환경 속에 무조건 예측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전적으로 환경으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하거나, 환경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지배자일 수도 없는 것이다.

인간과 환경의 관계는 역사가와 그가 다루는 사실과의 관계와 같다. 역사가는 사실에 대해서 천한 노력도 아니고, 억압적인 주인도 아니다. 역사가와 그가 다루는 사실은 평등한 관계이다. 저술 중에 있는 역사가가 잠깐 일을 멈추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역사가란 자기의 해석에 맞추어서 사실을 형성하고, 자기가 다루고 있는 사실에 맞추어서 해석을 형성하는 끊임없는 과정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양자 중의 어느 한쪽만을 우위에 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역사가는 임의로 선택한 사실과, 그러한 사실 선택을 이끌어 준 임시적인 해석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일이 진행됨에 따라서 해석이나 사실의 선택과 정리는 다 같이 쌍방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미묘한 변화를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역사가는 현재의 일부이고 그가 다루고 있는 사실은 과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호 작용에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상호 관계가 내포되는 것이다.

역사가와 과거의 사실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다. 과거의 사실을 갖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를 박지 못한 무능한 존재이다. 역사가의 해석이 없는 과거의 사실이란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존재이다. 이리하여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나의 제1답(第一答)은 결국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역사란 역사가와 과거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 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나)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으로 발전하고 공간으로 확대되는 심적(心的)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가 그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요,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이렇게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다.

무엇을 ‘아’라 하며 무엇을 ‘비아’라 하는가? 쉽게 말하자면, 무릇 주관적 위치에 서 있는 자를 ‘아’라 하고, 그 밖의 것은 ‘비아’라 한다. 이를테면 조선인은 조선을 ‘아’라 하고 영(英: 영국), 로(露: 러시아), 법(法: 프랑스), 미(美: 미국) 등을 ‘비아’라고 하며, 무산(無産) 계급은 무산 계급을 ‘아’라 하고 지주나 자본가를 ‘비아’라고 하지마는, 지주나 자본가는 저마다 제 불이를 ‘아’라 하고, 무산 계급을 ‘비아’라 한다. 이뿐 아니라, 학문에나 기술에나 직업에나 의견에나, 그 밖의 무엇이든지 반드시 본위(本位)인 ‘아’가 있으면 따라서 ‘아’와 대치되는 ‘비아’가 있고, ‘아’ 가운데 ‘아’와 ‘비아’가 있으면 ‘비아’ 가운데에도 ‘아’와 ‘비아’가 있다. 그리하여 ‘아’에 대한 ‘비아’의 접촉이 잦아수록 ‘비아’에 대한 ‘아’의 분투가 더욱 맹렬하여 인류 사회의 활동이 열 사이가 없으며, 역사의 전도가 완결될 날이 없다.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뒷면에 계속)

‘아’나 ‘아’와 상대되는 ‘비아’의 ‘아’도 역사적 ‘아’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개의 속성이 있어야 한다. 첫째, 상속성(相續性)이니, 시간에 있어서 생명의 끊어지지 아니함이요, 둘째, 보편성이니, 공간에 있어서 영향을 파급이다. 그러므로 인류 아닌 다른 생물의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마는 그 ‘아’의 의식이 너무 미약하거나 혹은 전혀 없어서 상속적, 보편적이 되지 못하므로 역사의 조작(造作)은 인류에게만 주어졌다. 사회를 떠나 개인적인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마는 그 ‘아’의 범위가 너무도 약소하여 역시 상속적, 보편적이지 못하므로 역사가 되지 못한다. 또한 인류에게 있어서도 사회적 행동이라야 역사가 되므로, 한 사건에 있는 상속과 보편이라는 속성의 강약으로 역사의 재료가 될 만한 분량의 크고 작음을 정하게 된다.

이를테면 김석문은 300년 전에 지원설(地圓說)*을 창도(唱導)한 조선의 학자이지마는 이를 후루노**의 지원설과 똑같은 역사적 가치를 쳐주지 못하는 것은, 저편은 그 학설로 인하여 신대륙을 발견한다 하였지마는 이편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여립은 400년 전에 군신강상설(君臣綱常說)***을 타파하려 한 동양의 위인이지만 그를 민약론(民約論)****을 말한 루소와 동등한 역사적 인물이라 할 수 없음을, 당시에 다소간 정여립의 설에 영향을 입은 양반살육계(兩班殺戮穢)***** 등의 번개불이 한 번 번쩍하는 것 같은 행동이 없지는 않았으나 결국 루소 이후의 파란만장한 프랑스 혁명에는 비길 수 없기 때문이다.

*지원설(地圓說): 조선후기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한 학설.

**후루노: 우주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주장한 이탈리아 철학자.

***군신강상설(君臣綱常說): 임금과 신하 사이에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 도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

****민약론(民約論): 루소가 주장한 현대 민주주의의 선구적 이론.

*****양반살육계(兩班殺戮穢): 비밀 무장 결사단체.

1-1. 제시문 (가)와 (나)에서 역사를 정의(定義)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인지 제시문 (가)와 (나)에서 각각 찾아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200자±20자) [12점]

1-2. 제시문 (나)에서 김석문과 정여립의 주장이 역사로 기록되지 못한 이유를 제시문 (가)와 (나)에서 근거를 찾아 서술하시오. (300자±20자) [18점]

【문항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눈이 멈추고 며칠이 지났다. 나는 현아가 내 시집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해서 안달이 났다. 그러나 다른 때와 달리 현아네 집에 가 보기가 망설여졌다. 학교는 이미 겨울 방학이어서 친구를 학교에서 볼 일도 없었다. 몇 번씩이나 현아네 집 골목에 들어섰다가 발길을 돌리곤 했다. 오다가다 우연이라도 현아를 만나기를 바랐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현아에게서 아무런 반응을 못 받은 나는 더 이상 시를 쓸 수 없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현아네 집 쪽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이 절망했는지 모른다.(……중략……) 고향 집에서 며칠을 보내며 내 살아온 지난날들을 더듬다 보니 자연스레 공책에다 필가를 끼적끼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대단한 내용을 담은 글은 아니었으나 글을 쓰다 보니 내 마음이 가라앉고 위안이 되었다.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시를 쓰자며 호기를 부리던 일이 떠오른 것이다. 어쩌면 나는 그 누구도 아닌 @내 영혼을 쓰다듬는 글과 내 마른 가슴을 축축하게 적서 주기 위해 글을 끼적끼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 여러 사람이 맨살 부대끼며 오래 살다보면 어느덧 비슷한 말투, 비슷한 욕심, 비슷한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 바라보면 거울을 대한 듯 비슷비슷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슷하다는 사실, 여럿 중의 평범한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기성품처럼 개성이 없고 값어치가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개인의 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당연한 사고입니다.

(다음 장에 계속)

(……중략……) 그러면 다른 사람과 조금도 닮지 않은 개인이나 탁월한 천재가 과연 있는가. 물론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외형만 그럴 뿐입니다. ㉔다른 사람과 아무런 내용이 없는 '순수한 개인'이란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처럼 소설 속에만 있는 것이며, 천재란 그것이 어느 개인이나 순간의 독창이 아니라 오랜 지(叢智)의 집성이며 협동의 결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잊고 있는 것은 아무리 답장을 높이더라도 결국 서로가 서로의 일부가 되어 함께 햇빛을 나누며, 함께 비를 맞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대체로 사람들의 사교는 값이 너무 싸다. 너무 자주 만나기 때문에 각자 새로운 가치를 획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㉕우리는 하루 세끼 식사 때마다 만나서 우리 자신이라는 저 곱팜내 나는 치즈를 서로에게 맛보인다.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이 견딜 수 없게 되어 서로 치고받는 싸움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예외범절이라는 일정한 규칙들을 협의해놓아야 했다. 우리는 우체국에서 만나는가 하면 친목회에서 만나며 매일 밤 난투기에서 또 만난다. 우리는 너무 얽혀 살고 있어서 서로의 길을 막기도 하고 서로에게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 그 결과 우리는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렸다. ㉖조금 더 간격을 두고 만나더라도 중요하거나 흥금을 터놓는 의사소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터인데도 말이다. 그들은 꿈속에서까지 혼자 있는 일이란 없다. 내가 사는 이곳처럼 1제곱마일마다 한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사람의 가치는 피부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사람의 피부를 만져본다고 그의 가치를 아는 것은 아니다.

(라) 아프다거나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정한 기간 단식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침·점심·저녁 식사가 하루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가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㉗끼니'를 잇는 일은 생명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잠자는 시간 외에 깨어나 활동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적절히 분할해주고 매 단락을 맺어 준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으면 하루가 엄청나게 길고 모든 것이 갑자기 무의미해진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만남과 헤어짐, 대화를 나눌 때 필요한 목소리와 얼굴의 인상 등 사람끼리의 관계 맺음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천하가 적막하고 고요할 뿐이다. 남과의 소통은 당연히 끊기고 자기 자신마저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 ㉘먹지 않는 시간은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건강요법을 하는 이들이 단식을 일컬어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것은 육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변화를 주는 행위이다.

2-1. 제시문 (다)의 ㉔, (라)의 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교하시오. (200자±20자) [12점]

2-2.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밑줄 친 ㉑, ㉒, ㉓, ㉔에 상응하는 대립항을 각각의 제시문에서 찾고, 이를 바탕으로 저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300자±20자) [18점]

【문항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웰은 우리가 외부의 압제에 지배당할 것을 경고했다. 하지만 헉슬리의 미래상에선, 인간에게서 자율성과 분별력, 그리고 역사를 박탈하기 위한 빅 브라더는 필요 없다. 스스로 압제를 환영하고, 자신들의 사고력을 무력화하는 테크놀로지를 떠받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웰은 누군가 서적을 금지시킬까 두려워했다. 헉슬리는 굳이 서적을 금지할 만한 이유가 없어질까 두려워했다. 오웰은 정보통제 상황을 두려워했다. 헉슬리는 지나친 정보과잉으로 인해 우리가 수동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할까봐 두려워했다. 오웰은 진실이 은폐될 것을 두려워했다. 헉슬리는 비현실적 상황에 진실이 압도당할 것을 두려워했다. 오웰은 통제로 인해 문화가 감옥이 될까 두려워했다. 반면 헉슬리는 우리들이 촉각영화(Feelies)*나 원심력 범블퍼피(Centrifugal Bumble Puppy)**와 같은 것들에 몰두하느라 문화가 하찮은 수준으로 전락할까 두려워했다.

(뒷면에 계속)

헉슬리가 『다시 가본 멋진 신세계』(1958)에서 언급했듯이, 자유주의 시민들과 합리주의자들은 전체정치에 대항하는 경계태세는 늘 빈틈없이 살피면서도 “인간들의 거의 무한정한 오락추구 욕구는 미처 살피지 못했다.” 『1984년』(1948)에서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해 통제한다. 『멋진 신세계』(1932)에서는 즐길거리를 쏟아부어 사람들을 통제한다. 한마디로, 오웰은 우리가 중요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까 봐 두려워했다. 헉슬리는 우리가 좋아서 집착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까봐 두려워했다. (……중략……)

조지 오웰이 명석했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선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을 터이다. 여기엔 오웰적 관점이라곤 전혀 없다. 대통령이 언론을 수하에 놓고 부리지도 않았다.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는 소련의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Pravda>도 아니고, <AP통신> 역시 <타스통신Tass>과는 전혀 다르다. 거짓을 진실로, 진실을 거짓으로 바꿔 부르는 <뉴스피크Newspeak>도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은 대중들이 일관성 없고 파편화된 사건에 적응해서 즐기다 보니 무관심해진 것뿐이다. 이게 바로 엘더스 헉슬리가 예언했던 미래의 모습이며, 그러면 위의 사례를 보고도 놀랄 일이 없을 터이다. 헉슬리는 서구 민주사회가 춤추며 꿈길 속을 헤매다 스스로 땅 각 속으로 빠져들어 나란히 속박당하게 되리라 확신했다. 오웰과 달리 헉슬리는 모순에 무감각하고 기술이 주는 재미에 중독된 대중에게 아무것도 감출 필요가 없음을 간파했다. 마취제를 흘려보내는 정맥주사가 바로 텔레비전이라고 헉슬리가 적시하진 않았지만, 로버트 맥널리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소마(soma)***는 바로 텔레비전이다.” 라고 한 판단은 아무 거리낌 없이 수용했을 터이다. ㉙빅 브라더는 하우디 두디(Howdy Doody)****였다.

*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일종의 쌍방향 촉각영화로 요즘의 가상현실 기술과 유사하다.

** 어린이들이 쇠구슬을 갖고 노는 단순한 놀이.

*** 미래의 인류가 불안하거나 근심이 생길 때마다 먹는 약의 이름. 소마를 먹으면 곧바로 행복감을 되찾는다.

**** 1947년부터 1960년까지 인기를 끈 NBC방송의 인기 어린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주근깨 가득한 소년 모습의 꼭두각시 인형 이름.

(나) 랜던(John Rendon)은 스스로를 완곡하게 말해서 ‘정보 전투와 인식 관리 전문가’ 라고 표현했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랜던 그룹은 미국 정보기관과 외국 정부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차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쿠웨이트로 진격했을 때 텔레비전 카메라는 수백 명의 쿠웨이트인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환영하는 장면을 비추었다. 랜던은 어떤 대담 자리에서 그 장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번 생각해봐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라크의 침략으로 7개월이나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쿠웨이트 사람들이 미국 국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더욱이 다른 동맹국 국기까지 있었어요. 이제 이유를 아셨나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랜던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비밀이다. 정보기관의 고위층들도 그가 뭘 하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다. 부시 정권 때 이라크에서 그가 미국 정부를 위해 어떤 선전 활동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랜던이 그 중심인물이라고 주장하지만 랜던은 모두 부정하고 있다.

(다) 임상진 ○○게시판에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작업을 하셨습니까?

찾탕탕 게시판 망가뜨리는 데는 얼마 안 걸렸습니다. 그렇게 게시판에서 진상을 피우니까 한 달 사이에 ○○게시판 사이트가 황폐해졌어요.

그 뒤로도 한 반년 정도 계속 작업했어요. 떠나갔던 이용자들이 다시 돌아오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 ○게시판 거기는 완전히 죽었다, 잘난 척 하는 어린이들이 병림픽하는 쓰레기장이 됐다’ 고 완전히 인식을 할 때까지 있었어요. 그 사이에 거기 주인장 은올마저도 자기 트위터에 ‘정치적 올바름과 불편함 외에는 아무것도 낳지 못하는 ○○게시판에 애도를’ 따위의 글을 올리고 자진 이제 게시판 안 본다고 공언할 정도가 됐죠.

임상진 게시판이 망가지는 게 눈에 보이던가요?

(다음 장에 계속)

찾땃땃 일땃 올러오는 게시땃물 자체가 확 줄었어요. 전성기 때의 반질 아래로, 평균 조회수는 처음에 잠깐 늘었는데 아마 싸움 구경 때문이었을 겁니다. 주인공이나 이용자들이나 게시땃판에 별 관심 없었었을 때 몇 번 서버를 공격해서 다운시켰더니 사이트 유입량이 반의반 토막으로 떨어지더군요. 그런데 그런 수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전에는 ○○게시땃판이 어떤 인터넷 활동가와 아마추어들 사이에서 구심점 역할을 했거든요.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정부 비판하는 신문광고도 내고 소모임도 결성하고, 그런 모임을 저희는 스마트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됐죠. 실제로 차단도 했고. (……중략……)

일상진 그래서 다른 진보 사이트들도 그렇게 공격하셨나요? 그 방법이 다 잘 먹혔나요?

찾땃땃 아, 아뇨. ○○만 해도 양반이에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방법이 안 통하는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는데……. 그런데 거기도 결국 방법을 찾았습니다. 훨씬 더 뭐랄까, 파괴적인 방법이었어요. 거긴 아주 축대밭을 만들어놨죠. 나중에 아예 사이트가 쪼개졌죠. 거기에 관련됐던 핵심 인사들은 한동안 인터넷 못했을 겁니다.

3-1. 제시땃문 (가)에 나타난 오웰과 헉슬리의 관점을 비교하시오. (200자±20자) [10점]

3-2. 제시땃문 (가)에서 ㉠의 함의(含意)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00자±20자) [15점]

3-3. 제시땃문 (나)와 (다)가 (가)의 두 관점 중 어느 쪽을 뒷받침하는 사례인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200자±20자) [15점]

* 주의사항 :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